

지난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총 75명...2017년 117명 比 36% ↓

11개 교통안전기관 협업 효과 특출

지난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집계한 결과 총 75명으로 지난 2017년 117명에 비해 36%(42명)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경우 지난 2017년 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수나 보행 중 사망자수 등 모든 교통

사고 지표도 전년대비 개선됐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지난해 2월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등 11개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해 교통시스템 개선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협업팀은 교통사고 관련 정보 공유와 사고 원인조사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교통안전 캠페인, 교육 등

합 등을 추진했다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정부혁신 협업체를 구성해 교통시스템 개선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협업체는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무단 횡단 사고 다발지역 17곳 횡단방지

울타리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올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도심부 주행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지수가 대폭 개선됐다"며 "올해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가 열리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탈레반 동시공격으로 아프간 경찰 21명 사망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동시다발적 공격으로 최소 21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밤 북부 아프간에서 동시에 세 건의 공격이 발생, 최소 21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도 최소 23명에 달한다. 아프간 보안군은 탈레반 진격을 막기 위해 대포를 발사했다.

이번 공격은 사르이폴주 주도 인근 지역의 유적과 차량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지비홀라 아머니 도지사 대변인 설명을 인용, 공격에 소총과 로켓추진식 수류탄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아머니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탈레반 측에서도 사상자가 나왔다. 다만 탈레반 측 사상자들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탈레반은 미국 및 지역 강대국들과의 평화협상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최근 수차례 공격을 강행해 왔으며, 이번 공격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에는 부장관들이 키블의 정부 건물에 침입해 29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이번 공격을 아프간 북부 지역 이슬람국가(IS) 약화를 위한 영토 주장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IS와 탈레반은 아프간 내에서 대립해 왔으며, 평화협상을 추진해온 미국과 탈레반은 아프간 지역 IS섬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해 8월에는 150명 이상의 IS대원들이 주즈잔주 인근에서 탈레반과 교전된 뒤 정부군에 항복하기도 했다.

영국서 흥기 난동 최소 1명 사망·6명 부상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영국 곳곳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 사건으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영국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오전 5시30분경 런던의 파크 레인 지역에서 34세 남성이 행인들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희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파크 레인 지역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37세, 29세 남성과 28세 여성도 지상을 입은 채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보국의 앤디 패트릭스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비공개 파티가 열린 건물 정문이었다. 우리는 이 파티의 참석자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많은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참석자들이 파악되지 않았다. 핸드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스는 "사망한 남성과 칼에 찔린 두 명의 남성은 파티의 보안요원으로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경우 보안요원들이 파티장의 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정보당국은 이 사건을 특정 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인 31일에는 맨체스터의 빅토리아역에서 한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을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25세 남성으로 경찰관 4명에게 제압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美 네일숍서 4만원 때문에 살인사건 발생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손톱 관리숍(네일숍)에서 35달러(약 4만원) 때문에 네일숍 매니저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NBC 뉴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플라밍고 로드에 있는 크리스탈 네일숍에서 전날 오후 매니큐어 서비스를 받은 뒤 도망가는 여자 손님을 뒤쫓던 베트남 출신 50대 네일숍 여성 매니저가 손님이 내려진 통기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매니큐어 서비스를 받은 뒤 35달러의 요금을 청구받고 크레딧 카드를 건넸지만 카드에 문제가 있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 매니저 용의인은 다른 카드 또는 현금 지불을 요구했지만 용의자는 그대로 문을 열고 달아났다.

이 용의자는 주차장으로 뒤따라 나온 용의인을 통기로 여러차례 내려쳐 쓰러뜨린 뒤 개만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용의인은 곧바로 서던 네바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뒤에 숨졌다.



화천산천어축제 얼음천공 강원 화천산천어축제 개막을 사흘 앞둔 2일 오후 축제 관계자들이 얼음낚시 천공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소방청, 올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발표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리진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도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방청은 2일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쇄·집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에서 과태료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한다.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소방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견본주택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

류패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뉴스스

폐원 추진 사립유치원

108곳 집계...승인 6건

지난해 마지막 날이던 12월 31일 까지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은 108곳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12월 24일 집계 당시 106곳보다 2곳이 더 늘어났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총 108곳 중 폐원 승인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6곳이며,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8곳이었다.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사립유치원은 94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폐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승인받은 사립유치원은 한 곳도 없었지만 추진중인 사립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34곳이었다.

전북은 폐원 승인을 받은 사립유치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7곳은 학부모 동의를 얻는 단계다. 경기도는 14곳이 추진 중인 가운데 1곳은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역시에는 ▲대구 10곳(교육청 신청 1곳) ▲인천 8곳 ▲광주 5곳 ▲부산 3곳 ▲울산 2곳 ▲대전 1곳 순으로 폐원을 추진 중이다.

이밖의 지역은 ▲강원 6곳(교육청 신청 2곳) ▲충남 5곳(폐원 승인 1곳, 교육청 신청 2곳) ▲충북 3곳(교육청 신청 1곳) ▲전남 3곳(교육청 승인 1곳) ▲경북 2곳 순으로 폐원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과 제주, 세종은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은 모두 인근 유치원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통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www.moe.go.kr)는 불법·관습적인 폐원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미흡한 대응은 교육부가 직접 상황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